

총장 선거 후유증 조선대 '술렁'

탈락 후보 지지자들 "이사회 결정 원천무효"

전호중 "모든 절차 합법적, 아무런 하자 없다"

제14대 총장 당선자에 2위 득표자인 전호중 현 총장이 선임되자 27일 조선대 구성원들은 종일 총장선임과 관련 크게 술렁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사회 결정인 만큼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1위 후보와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관행을 벗어난 결정이어서 반박 가능성 여부를 접지기도 하는 등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이와 함께 최종 선임과정에서 탈락한 후보와 지지자들은 이사회 결정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사회는 법인 정관상 총장 임명권은 이사회에 있으며, 1, 2위 득표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비롯한 총체적인 평가를 통해 전호중 후보를 선임한 만큼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그러나 최종 선임과정에서 탈락한 서재홍(의대) 후보가 이사회 결정의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본선거에서 3위에 올랐던 강동완(치대) 후보가 이사회 의결 과정의 법적 하자(이의신청 미반영)를 주장하는 등 후폭풍이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교수평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사회가 2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구성원들의 의사를 정면

으로 무시한 것으로, 그들을 더 이상 조선대 이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교수평의회 설명은 전 회원의 의견 수렴 절차없이 일부 집행부 교수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호중 후보 지지측은 "이사회 의결은 대법원 관례에 비춰 모든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총장 선거에서 2위 득표자가 당선자로 선임된 사례는 연세대와 고려대 등 수도권지역은 물론 원광대에서는 두 차례나 있었다"고 주장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내일부터 전국 비 기온 뚝 떨어질듯

29일부터 광주와 전남·북을 비롯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9일 낮부터 서해안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이후 광주와 전남·북 등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27일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10~60mm. 이번 비는 30일 새벽까지 내린 뒤 중서부지방을 시작으로 충청도, 남부지방 순으로 그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낮 최고기온이 21도 이하로 머물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한동안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김희호기자 kimho@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24분 / 해질 18시 22분 / 달돋이 07시 05분 / 달질 18시 33분

한낮엔 '후끈'

구름이 많다가 밤에 흐려지겠다.

광주	구름많음	14/27°C
목포	흐림	16/25°C
여수	구름많음	18/24°C
나주	구름많음	13/27°C
완도	흐림	16/26°C
구례	구름많음	12/26°C
강진	흐림	15/26°C
애남	흐림	13/26°C
장흥	흐림	13/26°C
순천	흐림	14/26°C
영광	흐림	14/26°C
진도	흐림	15/26°C
전주	흐림	14/26°C
군산	흐림	14/26°C
남원	흐림	11/26°C
옥산도	흐림	18/23°C

지역	바다	중량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0.5m	0.5~1.0m	보통	경고	보통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1.0~2.0m	보통	경고	보통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9(목)	30(금)	10/1(토)	2(일)	3(일)	4(화)
날씨	흐림	흐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최저/최고	17/23	17/22	13/21	12/21	11/21	12/21

"일관된 정책추진 ... 경험있는 후보 선택" "이사회 비합리적 판단 혼탁선거 매도"

전호중 일문일답

-이사회가 2위 득표자를 총장으로 선임했는데.

▲서재홍 교수님은 개인적으로는 다방면에서 (저보다)장점이 많은 분이시죠. 하지만 이사회는 확연히 구 갑수와 반갑 등록금 정책 등 급변하는 대학 교육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4년의 경험이 있는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 정책이 변화되고 보다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일관된 학교운영 계획 하에 개혁 및 발전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탈락후보와 그 지지자들의 반발 움직임이 거센데.

▲어떤 후보든, 지지자들 각자의 판단이 있다고 본다. 또 누구나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서재홍 일문일답

-이사회가 1위 득표자인 서 후보 대신 2위를 선임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다. 민주주의의 기본 조차 지켜지지 않은 결정이다. 선거가 혼탁 과열로 치러졌으나 불법은 아니고, 2등을 임명해서 혼탁 과열을 치유하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용납하겠다는가. 이번 결정은 원천 무효다.

-이사회가 2위를 선임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번 선거를 과열 혼탁 선거로 몰아가려는 현 집행부의 지속적인 언론 전락과 이에 의존한 이사회들의 비합리적 판단이 상충작용을 한 것으로 본다.

-선거과정중 발표된 이사장의 답변문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선거과정에서 이사장의 단호

한 조치를 암시한 답변문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어 선거 중립의무 위반이다. 오히려 후보들과 격려 차원의 자리를 가졌던 전직 총장들은 선거중립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를 염려하는 마음의 발로였으나 일부에서 선거개입으로 매도한 것이다.

-향후 대책은.

▲이사회가 구성원의 의사를 무시한 결정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사들의 퇴진과 함께 2위 후보자의 퇴진운동은 물론 이사회 결정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의결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연행뉴스



SINCE 1982

말소리가 잘 안들린다구요?

난청은 물론 이명까지 -젠 톤-

국제보청기

www.kjhr.com

- 노인성 난청에 탁월한 보청기
- 자연스런 소리연출이 가능한 보청기
- 이명 완화에 효과적인 보청기

본점 062-227-9940 | 서울점 02-765-9940 | 순천점 061-752-9940
 총장점 062-227-9970 | 목포점 061-262-9200 | 장흥점 080-222-9975

상무지구 관광호텔 예술의전당

웨딩·객실 대형행사

GRAND OPEN 1주년 기념

- 새롭게 준비한 총 100가지 뷔페
- 객실 50%할인 및 조식뷔페(30종) 무료제공
- 각종연회행사 할인! (돌잔치, 회갑연, 송연모임, 기업행사)

* 대형예식장 뷔페식비 보다 저렴하거나 동일합니다.
 * 가을뷔페는 총100여가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및 통참치와 즉석김치로 모십니다.
 * 하객 400인 이상 보증시 원목침대 및 협탁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 성수기 혼잡한 대형 예식장에 비해 훨씬 여유있는 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광주 최대의 5000평의 초대형주차장은 호텔예술의전당 뿐입니다.

관광호텔 예술의전당 예약문의 362-0011, 600-9999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메가 벗겨진 묘, 동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